

여수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 나선다

여수시·교육청, 여론수렴 위한 주민공청회 이달말 교과부에 사업 계획서·신청서 제출

여수시와 여수시 교육지원청이 최근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글로벌 인재 양성과 국제화 교육을 위해 주민 공청회를 갖고 '여수 교육 국제화 특구' 지정에 나섰다.

28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는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최종사업 계획서와 특구지정신청서 제출에 앞서 시민여론 수렴과 발전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국제화 특구는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특구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행·재정 지원에 따라 다양한 국제 교육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제 자율학교 설립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체험센터·외국어 도서관 등 외국어 전용타운 설립 ▲전문 인력의 국제교류, 해외진출 등을 위한 국제 교류센터 설립 운영 등이 있다.

장기생 여수시 교육지원과장은 이

날 공청회에서 "박람회 성공적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여수는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했고, 모든 분야에서 국제화가 필요하다"며 "종합적인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수 에듀파크'(Yeosu Edu-Park)의 건립을 통한 여수시의 교육도시 랜드마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어타운, 영어 학습체험 등 외국어 교육 강화, 사이버 외국어 학습센터 등을 운영, 특성화 교육기회를 부여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우수 인력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충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수시는 그동안 도시 경쟁력의 근간인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추진

하는 여수교육국제화특구 지정도 외국어교육 강화와 대학의 국가경쟁력 제고 등 여수교육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주는 좋은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최종사업 계획서와 특구지정 신청서를 이달 말에 전남도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06년 관광국제화 교육특구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래, 2009년에는 세계교육도시 연합(IAEA)에 가입해 교육 국제화를 추진해 왔다. 교육 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그동안 여수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5개년 추진계획서를 만든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im@



원예치료 나눔행사 (사)호남사랑(이사장 김인숙)과 동신대 한의학과는 최근 보성군 회천면 회령2리 회관에서 한방 의료봉사와 원예치료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미일뱅크 농·어촌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발전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보성군 제공>

광양제철소, 올 에너지 절감으로 300억 벌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백승관)가 국가전략 수급난 대응 및 증가하는 에너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절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철소의 전체적인 에너지절감 활동을 주관하는 에너지부는 에너지절감 가이드와 기술을 지원하고, 부서별 에너지 진단을 통해 과제발굴을 돕고 있다. 에너지절감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화성부는 에너지 절감 멘토링과 함께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방법을 변경해 전력절감을 이뤘고, 제선부는 집진효율 향상을 통해 165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낭비요소를 발굴해 전력비를 매월 7000만원 가량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강부는 공장별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제강, 연주공장 공기압축기 에너지 진단 및 설명회를 통해 강도높은 에너지 절감을 추진

중이다. 열연부를 비롯해 냉연, 도금부는 에너지 낭비 요인에 대한 공장별 정보 공유 및 벤치마킹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상반기 활동 결과 광양제철소내 공장별로 발굴, 진행한 에너지 절감과제는 349건에 달하며, 이를 통해 8만8000 TOE(석유환산)의 에너지 절감과 300억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시, 하반기 전남도 인재육성 장학생 모집

여수시가 올 하반기 전남도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9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번에 선발하게 되는 장학생은 ▲인재육성 장학생 6명 ▲복지 장학생 25명 ▲울촌 현대장학생 5명 등 36명으로 전남도에 추천해 선발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24세(대학생 30세) 이하로, 본인 및 친권자가 전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당해 학기에 국가·자치단체·학교 등에서 대학생은 100만원 이상의 학비를 지원받거나, 부모가 직장으로 부터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고흥군 자산 증가...재정 운영 '탄탄'

고흥군 재정이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최근 군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발표했다.

재무보고서의 재정상태 분석결과 총 자산은 2조407억원으로 전년(1조 9226억원) 대비 6.1% 증가했다. 이는 도로·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문화 및 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주민편의시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는 357억원으로 전년(342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2011회계연도 고흥군의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75%로 전남도 부채비율인 6.48%에 비해 현저히 낮다.

지난해 한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수익이 전년보다 40억원 증가해 3999억원, 비용은 전년보다 50억원 감소해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071억원으로 전년대비 90억원이 증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인 재정시책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알뜰한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귀중기자 gjju@

보성교육청, '스토리텔링 수업 직무연수'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명선옥)은 최근 3일간 보성 영재교육원에서 초등교원 134명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수업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첫날 연수에서 서울 종로초 송언(동화작가) 교사는 학급에서 만난 아이들이 동화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구수한 입담으로 풀어내었고, 서울 노원초 최홍순 교사는 이야기의 힘을 담은 사회수업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연수는 왕귀식 살아있는 수학교육연구소 소장이 수학의 개념을 이야기로 풀어내어 재미와 놀이로 다가가는 수학교육을 선보였으며, 충남 반곡

초 박진환 교사는 아이들의 삶의 리듬을 있는 학급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마지막 날에는 광주 동운초 김기명 교사가 실험과 관찰로 파고드는 과학수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선옥 교육장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은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켜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로 기르는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순창읍 전지역 2014년 도시가스 공급

오는 2014년까지 순창읍 전지역에 도시가스가 완전 공급된다.

순창군은 "오는 11월 인계·풍산·가남 농공단지와 순창읍 공동주택 99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순창읍 전지역에 공급될 전망이다"고 28일 밝혔다.

총사업비 290억원이 투입되는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시작해 올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오는 11월에는 순창읍 전 세대의 25%를 차지하는 5개소의 공동주택

994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내년에는 충신 3, 관서, 관북 1, 순화 1·2 마을 등 하수관로 병행구간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또 2014년에는 육천 1·2·4, 충신 1, 창림, 중은, 시기마을로 점차 확대해 공급하게 된다.

1가구당 소요비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30만~50만원 가량이, 단독주택의 경우는 220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순창읍의 기타지역은 주공급관 100m당 30세대 이상이 신청할 경우 공급된다는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폭력가해자, 상급학교 강제 재배정

전북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부 재조정 심의 확정

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자로 강제 전학조치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최근 고교평준화 지역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일부 재배정 조정'을 심의, 확정하고 지난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도교육청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도내 중학교와 평준화지역 고교 진학을 위한 배정으로 한정하고, 2012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의해 강제 전학한 학생으로 제한했다.

강제 재배정 절차는 지역교육청에서 2012년 4월 1일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서 강제 전학조치된 학생 명단을 피해자 명단과 함께 도교육청에 제출→동일 사안의 가해자와 피

해자가 같은 학교에 배정됐는지 여부 확인→같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강제 재배정 조치→학교 배정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학교에서는 입학전형에 맞게 가배정된 이후 강제 재배정 절차를 따르므로 재배정되는 학교는 해당 가해자를 정원의외로 처리하게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군,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

고창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설물 및 시설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관내 농업용 시설물을 소유 또는 시설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이다.

농업용 시설물은 단독·연동 하우스(단독 1000㎡, 연동 400㎡ 이상), 광복하우스(아치형·편지봉형·4분의 3형), 유리온실이 대상이며, 시설작물은 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

외·호박·꽃고추·국화·장미·파프리카·멜론이 대상이다.

시설작물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 이어야하고 시설물 재해보험과 함께 가입해야하며, 예외로 유리온실에 한해 작물만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전북도와 고창군에서 25%를 지원하며, 농가는 나머지 25%만 부담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군, 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단독 등기 가능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분할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8일 부안군에 따르면 오는 2015년 5월까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의 단독 등기가 가능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해당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분할제한면적 등이 미달될 경우 필지별로 분할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한우고기 실컷 드세요"

순창군 한우협회(회장 이성연)는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최근 군청 구내식당에서 한우 불고기 50kg(200만원 상당)을 제공, '한우고기 먹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kwangju.co.kr

단신

전주시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 사전점검

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가 시행된다. 이번엔 실시하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는 필요시 읍·면·동을 방문해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

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각 동 민원실내 지문 인식기와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을 사전점검하는 등 시행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보건소 치매 인지증진 프로그램 운영

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 치매상담센터는 9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치매 조기검사후 인지장애에 위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에 노인

우울증 검사, 치매 선별검사, 운동기능 평가를 한 뒤에 실시한다.

시 보건소는 전북도 치매관리센터 전문 인력과 호원대 작업치료학과 협조하에 비즈공예, 손동작 및 인지훈련, 회상요법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순창군 친환경 축산농가 147곳 선정 지원

순창군은 최근 친환경 인증농가와 1년 이내 친환경인증 예정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농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147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군비 2억6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사업별 지원내역으로는 ▲친환경 인증비지원 92농가 5100만원

▲유용미생물제, 미세탈블락 등 무항생제 지원 136농가 9900만원 ▲축사시설 개보수 12농가 1억 1000만원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현재 120호에 이르는 친환경 축산농가를 내년에는 250호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부안군의회 내달 6일까지 임시회

부안군의회는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28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등을 결정하고 추경안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를 구성했다. 29일부터는 군정

에 관한 보고에 이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박천호 의장은 "건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 소득향상에 직결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